

제 목

2021년 12월 FOMC 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

<요 약>

- (경제동향 및 전망)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고 실업률은 크게 하락했으며,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관련된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기여
 -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으로 경제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졌으나, **경제회복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및 고용 관련 **2가지 정책금리 포워드가이드런스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었다고 평가
 -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과 노동시장 강화 등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중인 자산순매입에 의해 제공되는 **완화적인 정책의 증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자산순매입규모 감축 속도를 두 배로 증액
 - 일부 참석자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의지**(strong commitment)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통화정책 정상화 고려요인 논의) ① 과거 통화정책 정상화 교훈, ② 완화적인 정책 회수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금리인상 vs 대차대조표 축소), ③ 정책정상화 조치의 시기 및 순서, ④ 연준 대차대조표의 장기 적정규모 및 구성 등을 논의
 - **정책금리 목표범위 변경**이 통화정책기조 변경의 **주요 수단**. 더 강한 경제 전망,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큰 대차대조표 등 현재의 제반여건이 잠재적으로 **더 빠른 정책금리 정상화 속도를 필요**할 수 있음
 -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의 첫 인상 이후 어떤 시점(at some point)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는 이전 정상화 때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

1.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

- (경제상황) 참석자들은 경제성장이 3분기에 둔화된 후 4분기에 강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2022년에도 견실한(robust)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소수(a few) 참석자는 강력한 성장을 계속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건전한 가계 대차대조표, 기업의 재고 재건 필요성, 완화적인 금융여건을 언급
 - 두어 명(a couple of)의 참석자는 소매, 레스토랑, 호텔 부문과 같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
 - 많은 참석자들은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이 경제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아직 새로운 변종이 미국의 경제회복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소비지출) 참석자들은 대체로 소비재 수요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이는 완화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음에 따라 증가한 가계 소득, 가계 부문의 순자산 증가,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높은 수준의 저축 등에 기인

- (기업활동) 참석자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강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 이러한 도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소수는 보고자들이 공급 여건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
 - 많은 보고자들이 모든 기술 수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보너스 또는 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

□ (노동시장) 참석자들은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급여가 견조한 속도로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

○ 소수 참석자들은 최근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핵심 생산인구(prime-age)의 취업율에 있어 인종간 격차가 좁혀지는 등 노동시장이 보다 포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지적

○ 일부(some) 참석자들은 11월 노동시장 참가율의 완만한 증가에 대해 논의

— 많은 참석자들은 노동 참가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소수 다른 참석자들은 노동 참가의 추가 개선이 아주 미미(quite modest)할 것이라고 평가

— 두어 명의 참석자는 재정 부양책의 축소, 저축의 고갈(특히 저소득 가구) 등 향후 몇 년 동안(next few years) 노동 참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언급

○ 참석자들은 기록에 가까운 퇴사율과 일자리 공백(job vacancies), 높은 임금 상승률 등 미국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는 여러 징후를 지적

○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의 징후에 대해 입수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

○ 물가 안정과 함께 완전고용 수준까지 이루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may evolve over time), 많은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FOMC의 **완전고용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상황이 이미 완전고용과 대체로 부합한다고(largely consistent) 보았음

□ (물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고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했다**고 언급

○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 평균 측정값(trimmed mean measures)이 10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상당수준(substantial) 가격을 인상한 제품군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2022년 동안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의 모두가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수정했으며 많은 수가 2023년 전망도 수정
- 인플레이션 전망 수정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비용 및 임대료 상승,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더 광범위한 임금 인상,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 장애의 장기화를 지적
- 참석자들은 보고자들이 높아진 인건비와 자재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인용
- 참석자들은 올해 생활비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가계, 특히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
-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져 일반 대중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FOMC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 논의
 - 이러한 것이 실현된다면 FOMC가 장기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리스크)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을 갖는다는 데 동의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기술 변화, 인구 통계, 낮은 균형 금리 환경에서 유효금리하한과 같은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했던 구조적 요인이 팬데믹의 영향이 진정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
- 다른 두어 명은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실질임금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임금-물가 역학(wage-price dynamics) 발생 위험에 주목
-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동시장(특히 노동 참여의 진전) 및 공급망 상황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강조

- 많은 참석자들은 팬데믹, 특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대한 하방 위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2.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

▣ (포워드가이던 충족여부 판단) 참석자들은 FOMC가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포워드가이던스에서 명시한 기준과 관련한 경제 진전상황에 대해 논의

- 인플레이션 기준 : 인플레이션이 2%로 올라가고 상당기간 완만하게 2%를 초과하는 기준을 훨씬 더 충족했다는데 동의

— 모든(all)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과 경제재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하여 계속 2%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언급

- 완전고용 기준 : 최근 몇 달간의 견고한 일자리 증가, 1년 전보다 낮아진 실업률, 최근 노동참가율의 개선 움직임(edged up)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

— 많은(many) 참석자들은 현재의 개선 속도가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빠르게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노동 시장 상황이 이미 완전고용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언급

▣ (정책금리 판단) 참석자들은 FOMC의 완전고용 및 물가안정(장기적으로 2% 추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 상황이 FOMC의 완전고용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0 ~ 1/4%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대부분의(most) 참석자들은 최근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지속된다면 완전고용 판단 조건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소수(a few) 참석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안정과 일치하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진전될(evolve) 것이며, 경제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일부(some) 참석자들은 FOMC가 완전고용이 완전히 달성되기 전에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 There could b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efore maximum employment had been fully achieved.

— 예를 들면, 경제동향에 비춰볼 때 고용 및 물가 목표가 보완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FOMC의 장기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질적, 지속적으로 더 높게 움직이는 경우임*

* For example, if the Committee judged that its employment and price-stability goals were not complementary in light of economic developments and that inflation pressures and inflation expectations were moving materially and persistently higher in a way that could impede the attainment of the Committee's longer-run goals.

□ **(자산매입정책 판단)** 참석자들은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과 노동시장 강화 등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중인 자산순매입에 의해 제공되는 **완화적인 정책의 증가** (the increase in policy accommodation provided by the ongoing pace of net asset purchases)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자산순매입을 더 빨리 중단하는 것이 FOMC가 “모든 가능성 있는 경제적 결과(the full range of plausible economic outcomes)”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현재 진행중인 **자산순매입규모 감축 속도를 두 배*로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1월부터 자산순매입 속도를 국채는 월중 200억달러, MBS는 월중 100억달러 감축기로 결정

○ 경제상황이 향후 자산순매입 속도가 매달 비슷한 규모로 감축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진전되면서 **3월 중순경에 자산순매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는 11월 FOMC 회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몇 달 빠른 것임)

○ 참석자들은 경제전망이 변경되는 경우, FOMC가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

□ **(향후 정책방향)** 참석자들은 적절한 정책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이 높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

-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자의 전망을 고려할 때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

* Participants generally noted that, given their individual outlooks for the economy,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it may become warranted to increase the federal funds rate sooner or at a faster pace than participants had earlier anticipated.

- 일부(some) 참석자들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를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한 후에 비교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

* Some participants also noted that it could be appropriate to begin to reduce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relatively soon after beginning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 일부(some)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덜 완화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수 있으며, FOMC는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한 의지 (strong commitment)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

* Some participants judged that a less accommodative future stance of policy would likely be warranted and that the Committee should convey a strong commitment to address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 다만 긴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measured approach)이 향후 FOMC가 신규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평가하고 “모든 가능성 있는 경제적 결과(the full range of plausible economic outcomes)”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3. 정책정상화 고려요인 논의 (Discussion of Policy Normalization Considerations)

① 개요

- 참석자들은 통화정책기조의 궁극적인 정상화(eventual normalization)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
 - 논의 주제에는 ① 이전의 정책정상화로부터 얻은 교훈, ② 완화적인 정책을 거두어 들이는 대안적 접근법, ③ 정책정상화 조치의 시기 및 순서, ④ 연준 대차대조표의 장기 적정규모 및 구성 등이 포함
 -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내용이 FOMC의 향후 정책정상화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
 -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FOMC의 접근방식(approach)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음
 - 참석자들은 정책정상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연준스택의 추가분석을 기대했으며(welcomed), 향후 회의들(upcoming meetings)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

② 연준스택 브리핑

- 연준스택은 과거 사례 브리핑을 통해 FOMC의 정책정상화 방법(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한 후 연준의 보유자산을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축소) 및 각 단계별 시점(timing)에 대해 설명
 - 그런 다음 정책금리 및 대차대조표 관련 조치가 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FOMC의 거시경제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대안적 방법(alternative ways) 등에 대해 논의
 - 동 프레젠테이션은 2가지 정책수단(정책금리 인상 vs 대차대조표 축소)의 수익률곡선에 대한 영향, 각 대안의 정책효과의 상대적 불확실성, 여러 수단(multiple tools)을 동시에 사용시 정책 수행과 커뮤니케이션 과제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
 -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외국중앙은행들의 정책정상화 경험을 브리핑

③ 참석자 논의

- (과거 접근방식 평가) 참석자들은 이전 접근방식(previous approach)이 여러가지 면에서 **현재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 특히 정책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원칙과 계획이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앞서 전달되어 대중의 이해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점에 주목
 - 동시에, 이전의 경험은 경제 및 금융의 동향에 대응하여 정상화접근법의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이점을 강조했다고 언급
 - 과거 정상화 경험 및 FOMC의 “장기 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 변경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양대목표를 지원하는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른 영향보다 연방기금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더 친숙한 도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더 유리하다는 견해를 반영
 - 또한 소수(a few) 참석자들은 연방기금금리가 유효하한(ELB)에서 벗어날 때, FOMC가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대차대조표 정책보다 금리정책을 더 민첩하게(nimble)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경제상황 및 제반 여건 비교)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이전 사례에서 우세했던 경제상황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FOMC가 완화적인 정책을 거두어 들일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이전 정책정상화 시작 시점과 비교할 때 현재의 경제전망(높은 인플레이션과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이 훨씬 강함
 - 연준의 현재 대차대조표 규모가 달러기준 및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측면에서 모두 2014년말 3차 대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시점보다 훨씬 큼
 - 연준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이전 정책정상화 초기보다 짧음
 - 일부(some) 참석자는 FOMC가 만기도래 국채와 MBS의 채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phasing out)하는 이전의 접근방식을 따른다면, 축소속도(pace of runoff)를 제한하는 한도(caps)에 따라 대차대조표가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국채시장의 취약성과 그러한 취약점이 대차대조표의 적정 정상화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
- 두어 명(a couple of)의 참석자는 대기성 리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가 그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 참석자들은 충분한 지급준비금 체계(ample-reserves framework), 기준에 대한 이자지급(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익일물 역레포(ON RRP) 등 연준의 현행 금리조절 수단이 갖춰져 잘 작동(in place and working well)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정책정상화에 유리한 위치(better positioned)에 있다고 판단
- 일부(some) 참석자는 특히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익일물 역레포(ON RRP)의 높은 활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화 과정을 거쳐 상당한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

* A significant amount of balance sheet shrinkage could be appropriate over the normalization process, especially in light of abundant liquidity in money markets and elevated usage of the ON RRP facility.

□ (정책대안 비교) 참석자들은 연방기금금리를 유효하한(ELB)에서 인상(policy rate liftoff)하는 것과 비교하여 대차대조표 축소(balance sheet runoff)를 시작할 수 하는 조건과 시점에 대해 처음 논의

-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여 이번에 두 정책의 상대적인 시기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 과거에는 정책금리 인상 시작 후 2년에 걸쳐 금리정상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

- 거의 모든(almost all) 참석자들은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의 첫 인상 이후 어떤 시점(at some point)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동의
-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번 대차대조표 축소의 적정시점이 이전 사례보다 정책금리 인상시점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
- 더 강한 경제전망,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큰 대차대조표 등 현재의 제반 여건(conditions)이 잠재적으로 더 빠른 정책금리 정상화 속도를 필요로 (warrant) 할 수 있다고 언급*

* They noted that current conditions included a stronger economic outlook, higher inflation, and a larger balance sheet and thus could warrant a potentially faster pace of policy rate normalization.

o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시점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

□ (수익률곡선에의 영향) 일부(some) 참석자들은 완화적인 정책을 줄이는 데 있어 대차대조표 축소에 더 의존하고 정책금리 인상에 덜 의존하는 것이 정책정상화 과정에서 수익률 곡선 평탄화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

o 이중 소수(a few)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수익률곡선이 일부 금융중개업체의 이자마진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안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o 그러나 다른 두어 명(a couple of)의 참여자는 많은 요인들이 장기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책혼합이 수익률곡선의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는 연준스텝의 분석과 과거 경험을 인용(referenced)

□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 많은(many) 참석자들은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가 이전 정상화 때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Many participants judged that the appropriate pace of balance sheet runoff would likely be faster than it was during the previous normalization episode.

o 특히 연준 보유국채의 짧은 가중평균만기를 고려할 때 보유채권 축소에 대한 월별 상한(monthly caps)을 두는 것이 대차대조표 감축 속도를 신중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장기 대차대조표 규모) 참석자들은 충분한 지급준비금 체계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과 일치하는 장기 대차대조표 규모에 대한 고려사항을 논의

o 참석자들은 현행 대차대조표 규모가 커진 상태(elevated)이며, 대차대조표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이후에도 당분간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o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은행들의 기본적인 지급준비금 수요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time varying)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지급준비금의 수준은 불확실(uncertain)하다고 언급

- 이러한 불확실성과 FOMC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두어 명(a couple)의 참석자는 금리통제(interest rate control)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여유 지급준비금(a substantial buffer level of reserves)”을 허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

* In light of this uncertainty and the Committee's previous experience, a couple of participants expressed a preference to allow for a substantial buffer level of reserves to support interest rate control.

-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적정규모에 대한 FOMC의 최종 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급준비금 규모가 줄어들 때 자금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일부(some) 참석자들은 대차대조표가 장기수준에 근접할 때 대기성 리포제도(SRF)가 금리를 통제(interest rate control)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대기성 리포제도(SRF)가 더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
- 여러(several) 참석자들은 대기성 리포제도(SRF)가 장기적으로 지급준비금 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으며, 장기 대차대조표 규모를 더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을 제기

□ **(대차대조표 자산구성)** 일부(some) 참석자들은 이전의 정상화 원칙(normalization principles)과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연준의 보유자산은 **주로 국채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

- 일부(some)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산구성을 달성하기 위해 MBS 원금을 국채에 재투자하거나 MBS를 국채보다 대차대조표에서 더 빨리 축소하는 방법을 선호